

보도자료

런던 브리드 시장,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시 첫 번째 아프리칸-아메리칸 중소기업체를 위한 \$150만불 순환대출기금 설립 발표

등재일 2020년 6월 19일

샌프란시스코 아프리칸-아메리칸 상공회의소와 메인 스트리트 런치 연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흑인소유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기금 설립

San Francisco, CA — 런던 N. 브리드 시장, 경제 및 인력개발처 (OEWD),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아프리칸-아메리칸 상공회의소는 오늘, 샌프란시스코를 위한 기금모금(Give2SF)에서 일차로 지원하는 \$150만불로 아프리칸-아메리칸 중소기업체 순환대출 기금 설립을 발표했다. 이 기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충격을 입은 아프리칸-아메리칸 사업자와 흑인소유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본과 재정적 지원을 위해 쓰이게 된다.

이 신규 대출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사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업체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해온 영세업체나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전 시적 노력의 일환이며, 시의 오랜 흑인 거주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OEWD의 일관된 약속이기도 하다.

다음은 브리드 시장의 담화이다: “수 세대에 걸쳐 흑인소유 사업체들은 등한시되거나 차별대우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을 받기가 항상 어려웠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사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지만, 흑인소유 사업체는 특별히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신규 대출기금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샌프란시스코 사업체들을 안정적으로 번영하게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칸-아메리칸 중소기업 순환대출기금의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업에 영향을 받아 갑자기 매출이 급감한 샌프란시스코의 흑인소유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긴급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을 되찾게 하는데 있다. 이번 경기침체로부터 시가 회복하게 되면서, 시는 모두가 형평성있게 회복하며 향후 모두가 참여하는 경제를 일구는 일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있다.

다음은 시 슈퍼바이저 샤만 월튼의 말이다: “우리 흑인소유 중소기업체들은 오랜동안 높은 임대료, 인력의 유출, 고급시가지화와 고립을 이겨내기 위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기금은 흑인 사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겨내는 한편, 종업원들의 급여지급을 계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하는 자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특별히 이 기금 수령자들에게 제공될 대출금 탕감 방안에 관해 기쁘게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이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흑인 사업체가 완전히 소멸될 가능성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을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인종차별로 인한 탄압의 역사, 여전히 남아있는 구조적 불평등,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충격을 인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흑인소유 사업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이런 상황은 지역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좀 더 심화된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해, 시가 회복기로 접어들더라도 더 큰 불확실성을 안게 된다. 흑인소유 사업체는 가장 타격이 심한 경제분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좀 더 소규모로서, 매출액은 비흑인 사업체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하다. 흑인소유 사업체는 자금과 지원 서비스를 받는데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하여, 필요한 모든 대출을 받기가 60퍼센트 더 어려운 관계로, 사업체 폐쇄의 위험이 더욱 크다.

다음은 경제인력개발처 국장 조아킨 토레스의 말이다: “경제적 기회 균등은 샌프란시스코의 문화와 경제적 역동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흑인소유 사업체들은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흑인인력 고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효과적인 지역적 투자를 촉진한다. 샌프란시스코 흑인사회를 위해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이 기금은 문제 해결책의 일부가 된다. 우리 시로서는 샌프란시스코 흑인사회가 더욱 부하고 온전해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인권위원회 국장 셰릴 데이비스의 말이다: “우리는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보아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 우리가 ‘정상’이라고 정의했던 것들은 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효용이 없었다. 앞으로 우리는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 일원들을 위한 투자와, 지난 수 세기에 걸쳐 굳어진 불공정한 제도를 바꾸는 것을 정상화 해야 한다. 이 기금은 일부 사업체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동안 간과되고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사업체 소유주들을 지원하는 체계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들의 혁신, 창의성, 노고가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 뿌듯하다.”

샌프란시스코의 아프리카-아메리칸 중소기업체를 위한 순환대출기금은 오랜 세월을 거쳐 자리잡은 아프리카-아메리칸 거주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포함,

샌프란시스코의 흑인소유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신속한 투입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기금의 목적은 사업체들로 하여금 필수적인 수요 충족, 기회의 확장, 그리고 불공정한 구조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발전하도록 돕는데 있다.

자금은 메인 스트리트 런치를 통해 해당 사업체에게 집행하게 된다. \$150만불의 기금은 상환조건의 융통성, 대출금 탕감 가능성, 그리고 폭넓은 기술적 지원을 수반, \$5만불 이하의 무이자 대출을 위해 쓰이게 된다. 목적하는 바는, 대상업체 선정은 업체의 필요를 근거로 심사하며, 개인보증이나 담보요구 등, 대출 받기위한 걸림돌의 최소화를 전제로 대출을 집행하는 것이다. 대출은 장기간 영업을 해 온 샌프란시스코 흑인소유 사업체, 특별히 그간의 자가격리조치로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사업체를 우선으로 하게 된다.

메인 스트리트 런치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 제이콥 싱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격변의 시기에 OEWD와 손잡고, 샌프란시스코의 아프리카-아메리칸 소규모 사업체를 강화하고 새롭게 하려는 런던 브리드 시장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동반자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아프리카-아메리칸 사업체들을 좀 더 심도있게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샌프란시스코 아프리카-아메리칸 상공회의소 회장 매튜 에이지에이키 박사의 말이다: “아프리카-아메리칸 소형업체를 위한 순환대출기금의 필요성은 이미 긴박하게 느껴져 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더욱 확대되었다. 이 기금은 연방정부의 미흡한 경기부양 자금이 흑인소유 사업체의 불과 12퍼센트에 제공되는 등,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흑인소유 사업체들이 기회의 역사적, 제도적 불공정성을 차단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연방정부의 적절한 주요관심과 재정적 지원의 결여는 흑인소유 사업체에 가중적으로 부담을 안겨, 많은 사업주들이 영구히 문을 닫게 되었다. 이와같은 배경에서 볼 때 브리드 시장과 새롭게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하는 바이다. 샌프란시스코 아프리카-아메리칸 상공회의소는 이 위대한 시의 흑인소유 사업체들의 생존력과 지구력이 우리가 함께 누리는 샌프란시스코의 경험과 미래의 모든 면에 끼치는 파생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 기금이 대출체계상의 구조적인 인종차별 관행을 바로잡고 흑인소유 사업체를 강화하게 되리라 믿는다.”

아프리카-아메리칸 중소기업 순환대출 기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책 및 회복 Give2SF 기금에 후하게 기부된 기금 등 여러 자원들의 효용성을 증대하는 공공영역과 사영역 연대의 결실이다. Give2SF에 모금된 기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주거지 안정화와 식품의 안전한 공급, 그리고 재정적 안정을 위해 쓰인다.

디비사데로 가 781번지에 위치한 뉴빌스 이발소 주인 후다리 '코치' 머리의 말이다: “나는 지금 수입은 없으면서도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는 등, 사업이 무척 어렵다. 자금 지원을 셋이나 신청했지만 하나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기금 소식을 듣게 되어 마음이 놓이고 기쁘다.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 준 브리드 시장과 시에 감사를 전한다.”

휘닉스 헤어 디자인(구 윈프레드)의 공동 소유주 체리 스카보로의 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건강상으로도 경제적으로 아프리카-아메리칸 지역사회에 큰 해를 끼쳤다. 필모어 지역에 소재한 흑인사업체 소유주로 나는 어떤 지원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새로운 기금은 나와 같은 업소가 영업을 계속하고 고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브리드 시장은 전례가 없는 상황에 대처한 세계적인 지도자로, 나는 그녀의 지도력과, 우리가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이 기금, 또는 기존 대출 및 지원금 신청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는 소규모 사업체는 oewd.org/covid19/business를 방문해 보면 된다.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추가적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기간 중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브리드 시장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사업등록비 89,000 업소 \$4천9백만불 유예, 그리고 통합면허비 징수 2020년 9월 30일까지 유예. 이 조치로 만 천명에게 \$14백만불의 혜택이 돌아감. 브리드 시장은 우선적으로 3개월 징수 유예를 발표했다.
- 소규모 업소 영업세 총 \$1천만불 징수 유예. 브리드 시장과 시스네로스 시 재정관은 소규모 업소에 1/4분기 영업세 징수를 2021년 2월까지 유예할 것을 통고했다. 이 유예에 따른 이자나 벌금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 종업원과 가족 1차 유급 병가 프로그램 \$1천만불, 종업원 1인당 40시간 이하 병가.
- 소규모 개인업체에 \$5만불 이하 총 \$9백만불 무이자 긴급대출.
- 소규모 업체 300 업소에 \$1만불 이하, 총 \$2백5십만불 규모 탄성지원금 공여.
- 저혜택 지역사회 소재 소규모 사업체 300업소에 총 \$1백만불 규모의 이웃 소액 지원금 공여.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현업 예능인 및 예술문화조직에 \$2백5십만불 지원.
- 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직원의 수입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
-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되는 중소형 사업체 강제퇴거 중단 선언.
- 제 3자 식품배달회사의 수수료 상한선을 15퍼센트로 제한.
- 연방정부의 CARES법(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법)에 소규모 사업체와 종업원을 위해 더 많은 자금지원을 해 줄 것 요청.
- 시 차원의 자선모금창구 www.Give2SF.org 설립. 이를 통한 기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력과 소규모 업체를 위한 주거지 안정, 식품의 지속적 공급, 재정적 안정을 위해 지원.
-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 기간 중 사업체와 근로자를 위한 자료, 연락처, 최신 소식을 제공하는 단일창구 웹사이트 www.oewd.org/covid19 출범.

출처: 샌프란시스코 시장실